

꿈과 계시

2016, 10, 8 안식일
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

제닝 소트롱의 꿈과 계시

토요일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남은 무리” 교회.

예수의 믿음 : 예언의 신

- 1) **144000이 예수님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꿈과 계시 521 장 No. 1 계시 계시

- 2) 저의 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너를 데려간다.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 창공에 계신다.”
- 3) 저는 위대하고 위엄있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매우 상냥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 4) 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저는 감히 그분께 매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 5) 제가 그분께 매우 가까이 가기로 소심하게 결정했을 때, 저는 제가 그분의 허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6) 그분께서는 키가 크셨는데, 키가 매우 크시고

위엄있으셨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 그분께서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너라, 두려워 말아라.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네 곁에 있다.”**

7) 제 아래 공간이 있음을 제가 알아채었기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 **“나를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8) 저는 큰 공간 밑으로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분 매우 가까이에서 있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창공에서 나와 함께 있다. 하늘은 내 발판이다. 두려워 말아라.”**

9) 예수님 매우 가까이에서, 저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워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10) 저는 시선을 올려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미소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던 짙은 구름들 속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밝은 안개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11) 저는 이슬비가 제게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맑아지자, 오, 하늘이 얼마나 웅대하고 광대한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12) 저는 예수님의 우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저 멀리 창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몇 줄기 태양 광선과 함께 구름이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꿈과 계시

521 장 No. 2 계시

- 1)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하나님의 우주에 있다. 멀리 보아라. 그것은 땅이다.”**
- 2) 저는 땅이 아침 안개 속에 있고 얼마간의 조명

이 땅을 밝혀주면서 여기저기에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한 무지개가 생기어 땅을 두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멀리서 보았습니다.

4)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청하겠다.”**

5)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땅으로 향하여 올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무지개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6) 저는 그것이 아주 자연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저의 바로 위로 옮겨온 이 빛나는 무지개 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7)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8) 제가 멀리서 보았던 그 무지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우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9)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을 위로 들라. 그 무지개가 우리 위에 있다. 나는 네가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이런 것들, 땅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무지개와 비와 계절들을 창조하신 분의 일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10)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분의 성령님.”**

11)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것이 너를 위해 여기로 오게 했다.”**

12) 저는 눈을 위로 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떨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영광! 영광! 예수님께 영광!”

13)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미소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서 경탄

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강렬한 빛 속에 있었습니다.

14)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15) 저는 이 무지개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제가 원한다면 그것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16) 그것은 저를 눈부시게 하는 강렬한 빛과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17)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18)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저는 대단한 밝기로 빛나고 있는 무지개 아래 있었습니다.

19) 예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제게 미소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은 제게 가까이 계셨으나 갑자기 잠시 그분께서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꿈과 계시

521 장 No. 3 계시

1) 저를 둘러싸고 있던 이 거대한 무지개 아래서 저는 약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허약한 한 마리의 어린 새끼임을 느꼈습니다. 그분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여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2) 저는 매우 놀라운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죄되고 육욕적인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굉장한 순간을 경험하려면 말입니다. 동시에,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과 항상 함께 하는 내세가 얼마나 좋을지를 깨달았습니다.

3) 그 때 무지개는 저를 둘러싸기를 그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저의 위로부터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4)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시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하늘의 아름다움, 밝은 색상들의 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은 제 시야로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 빨간색, 푸른색, 녹색, 자주색, 오렌지색, 노란색.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5) 저는 대단히 아름답고도 거대한 달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으나, 마음 편히 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144000은 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를 것이다.**”

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들 앞에서, 나와 144000과 함께 하는 내세가 얼마나 좋을지를 보는 이 특권을 받았다.**”

7) 저는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서서, 키가 크고 위엄있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8) 저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록한다해도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장엄하심, 하늘의 영광의 무한함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계시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반사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의 그 모든 장엄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꿈과 계시

521 장 No. 4 계시

계시

1) 창공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곁에 계속 있었는데, 그분께서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대 도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도시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요한**

계시록에 묘사된 일곱 천벌들로 멸망한다. 이 모든 천벌들 중에서 일곱째 재앙이 가장 무서울 것이다. 이 모든 도시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은 강력한 쓰나미, 지진, 강력한 화산들로 멸망할 것이다.”

3)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4) 저는 예수님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창공에서 그분 곁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다시 그리고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5) 그분께서는 저로 하여금 땅과 하늘의 거대한 표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계시에서 땅이 매우 가까이 오게 하셔서 저는 위에서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밤이었고 도시들은 무수한 빛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6)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사악함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이다.**”

7) 저는 아주 아름다운 한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종류의 가증한 것들로 더러워졌다. 내가 불로 땅을 정결케 하려고 간다.**”

8)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불멸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9)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이들을 데리러 간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들은 승천할 것이고 불멸할 것이다. 너처럼, 그들은 땅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게헨나의 불로 정결케 된 땅을 볼 것이다.**”**

10) 저는 떨었습니다. 게헨나라는 말씀에 저의 피가 오싹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을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11) “**내가 악인들과 땅을 망하게 하고 있는 자들을 멸하러 간다. 내가 악과 죄를 멸하러 간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더 이상 존**

재하지 못할 것이다. 평화와 안식일이 나의 우주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2) “144000은 인침받았다. 내가 그들을 둘러쌌다. 즉, 더 이상 악과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지는 :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다.”**

13) 예수님께서 땅을 바라보고 계셨고 땅에 있는 144000이 곧 도착할 것임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14) “144000에 들 이 대부분은 소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이다.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 젊은 남자들, 늙은 남자들이 죽었으나 다시 생명을 얻어 144000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표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목적지가 새겨져 있다 :

**하나님,
새 예루살렘.”**

15)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의 때의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들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죽은 남은 무리가 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표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목적지가 새겨져 있다 :

**하나님,
새 예루살렘.”**

16)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 나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남은 무리”가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참된 경배자들이다.”

17) “그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

18)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둘러쌌다.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표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목적지가 새겨져 있다 :

하나님,

새 예루살렘.”

19) “그 다음, 라오디게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배도에서 나온, 살아있는 빌라델비아 “남은 무리”가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

20) “주께서 그들을 둘러싸셨다.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표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목적지가 새겨져 있다 :

**하나님,
새 예루살렘.”**

21) “그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22) “그들은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그들을 모을 것이다.”

꿈과 계시

521 장 No. 5 계시

1) 우선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

2) 첫째 : “세상에 있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나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적은 ‘남은 무리’ . 나의 지워지지 않는 표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영존자의 참 경배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그들을 모을 것이다.”

3) 둘째 : “**빌라델비아** 적은 ‘남은 무리’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대인이라 부르시는데, 이는 그들이 엘렌 화이트와 제닝 스트롱의 예언의 신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권면들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셋째와 넷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안식일을 순종함**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그들을 모으도록 파견될 것입니다.

4) 144000에 들 살아있는 이들은 먼저 여섯 천벌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창공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게 계시하시기를, 살아있는 자들은 땅에 매일 부어지고 있는 먼저 여섯 천벌들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 예수님의 계시에 따르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 자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144000에 드는 자들만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그들을 모으도록 파견될 것입니다. 그 직후에, 일곱째 재앙이 있습니다.

6) “일곱째 재앙 때에, 압생트(쓴죽)가 와서 땅을 칠 것이다. 초대형 화산들이 깨어날 것이다. 강력한 지진들과 쓰나미가 있을 것이다. 온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섬들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 **하늘이 열립니다.**

**그것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입니다!**

8) 144000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셨습니다. 재앙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9) **그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10) “144000에 들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에, 그

들은 겨우 잠시 동안 죽음의 잠을 잤던 것으로 느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계십니다!**

대쟁투의 끝입니다.

12) 예수님께서서는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게돈 후에, 땅에 있는 144000은 가장 아름답게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왕 중 왕 예수님**을 봅니다.

13) 저는 그분의 방에서 나오시는 신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금 면류관을 쓰시고 금 홀을 드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14)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미소지어 주셨습니다.

15) 그 계시가 끝났습니다.

제닝 소트롱